

### “마음이 청정해야 지구가 맑아진다”

## 태승단, 세계지구의 날 대법회

#### 스님·신도 등 1만 5천여 불자 참가

“마음이 청정해야, 지구가 맑아진다.” 수천명의 태국 스님이 참석한 대규모 ‘세계 지구의 날’ 기념법회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지구촌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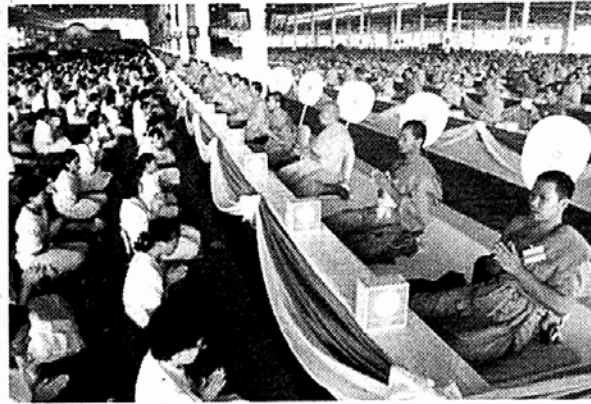
태국 담마까야(Dhammakaya, 法身) 재단이 22일 방콕 인근의 톨롱랑에서 개최한 이날 지구의 날 행사에서는, 스님 신도 등 1만5천여 불자들이 세계 평화와 지구환경 보전을 발원했다.

이날 태국의 고승들은 “세계는 모든 동물이 태어난 곳이자 선업과 악업을 짓는 곳인 동시에 사람과 동물, 영혼들의 집합체이자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라면서, “지구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마음과 불성, 육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들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해온 것은 탐, 진, 치 삼독에 물든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감정들은 결국 폭력과 죽음, 기근, 전염병 등을 유발했으며 악한 마음은 세계의 출발에서부터 혼돈의 기원이었다는 주장이다.

담마까야 사원의 비수티룬(Phra Bhavana Visuthikhun) 대수도원장은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처님께서 설한 ‘세계를 지키는’ 두 가지 덕을 제시했다. 악한 일에 대한 ‘혐오감(또는 수치심)’, 악업으로



22일 태국 방콕에서 1만 5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세계 지구의 날’ 기념법회.

인한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이날 고승들의 법문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특히 고승들이 대거 초청된 이유는 스님들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다는 것이 담마까야 재단의 설명이다.

해외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티베트불교 탄압비디오 첫공개

#### 중국 탈출 스님 2명, 사찰 파괴 모습 등 담겨

중국 티베트의 스님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대외 선전과 달리, 사찰 시설들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중국 남서쪽 쓰촨(四川) 지역에 있는 티베트 불교강원인 세타르사(寺)에서 기거하던 탄압을 피해 한 달간 걸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탈출한 켈파 립등 스님 2명이 18일 공개한 10분짜리 비디오에는 중국군이 인부들을 동원해 세타르사 경내와 인근의 묘사채 수천

채를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비디오에는 거주지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 스님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담겨 있지만 다행히 세타르사는 파괴를 면했다고 립등 스님은 밝혔다.

그는 남아시아 주재 외국 특파원단에 이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티베트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중국의 선전은 거짓’이라면서 지난 1980년 세타르사를 설립한 적에 풍족은 중국 당국에 구급대 있다고 말했다.

## 쥬일본 불교회

#### 25기 사무총국 출범

재단법인 ‘전일본불교회(全日本佛敎會, 東京都 港区 芝公園) 제25기 사무총국(事務總局)이 지난 1일부터 출범했다. 西村輝成(曹洞宗 出版室長)씨가 취임하는 등, 퇴임자를 대신해 4명이 사무총국에 들어왔다. 임기는 2년.

전일본불교회는 지난 1월말 ‘이사회-평의회’를 통해 大谷 光眞(本願寺派 門主) 회장, 森 和久(曹洞

宗 議長) 이사장을 각각 승인했다. 이번 고바야시(高林)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모리-고바야시 체제’가 갖추어지게 됐다.

새로운 사무총국은 현안인 네팔 롬비니동산 마야당 부흥문제 외에, 전 이사장이 제기한 아스쿠니신사(阿蘇神社)를 대신하는 종교시설(國土墓苑) 구상에 관한 의견 집약과 향후 국정선거의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신연사신(身延山院)’ 주지의 거역 소독세법 위반문제가 표면화된 일을 계기로 종교단체의 회계나 세금제도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 동경=정영식 통신원

## 인, 6일간 빔 페스티벌

#### 암베드카르 박사 111번째 탄생 기념 불교축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암베드카르 박사의 111번째 탄생을 맞아 ‘빔 페스티벌’(Bhim Festival)이 열렸다.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카르 박사의 생일은 인도 불자들 사이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축제로서, 이 ‘빔 페스티벌’이라는 명칭도 박사의 이름 ‘빔’에서 따온 것이다.

올해의 빔 페스티벌은 지난 9일 아쇼카 대왕의 석주 기공식을 겸한 개막 행사로 시작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시내의 암베드카르 회관 전시장에서는 박사의 유품과 사진, 세계의 불상 전시회가 열렸으며 동 회관 강당에서도 강연회와 세미나, 문학 발표회 등이 진행되었다.

빔 페스티벌은 17일 저녁 ‘붓다암 마하사’ 소속의 스님들을 모신 가운데 기념법회와 라자라만 스님의 법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법회를 마친 신도들은 거리로 나와 암베드카르 회관부터 푸네 역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행진하고 해산했다.

인도 푸네=이지은 통신원



21일 일본 요코하마시에 도착한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단 일행.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단장인 원공스님. 사진제공=중앙일보

##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단 日 요코하마 도착

성공적인 한일 월드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2002 한일 평화도보 대장정’(중앙일보 주최)에 나선 원공스님(천축사 주석) 등 일행 11명이 21일 월드컵 폐막식이 열리는 일본 요코하마(横浜)시에 도착했다.

2월 28일 서울 삼양동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한지 53일만에 이곳에 도착한 원공스님 일행은 그동안

한국 7곳, 일본 5곳 등 총 12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거처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행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 종교인들도 돕고 있다. 일행은 앞으로 70여일 동안 일본 동북부 지역 등을 행진한 후 부산, 울산을 거쳐 6월 30일 대구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의료·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 인 JTS, 지바카병원 인력없어 장비 낮잠

인도 네 천민마을에서 구제사업을 펼치고 있는 JTS(국제기아질병 문맹퇴치민간기구, 이사장 법륜스님) 지바카 병원에서 전문, 일반 자원봉사를 구한다.

현재 지바카병원에는 한국인 상근스님 3명을 비롯 파르타인 자원봉사자 인도인 의사 8명, 약사 1명,

의 의료전문 인력들이 자원이나 시설,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기본으로 현지 한국인, 인도인 스태프,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해줄 수 있다.

한편 JTS(www.jts.or.kr)는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도체질 봉사활동인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를 연다. 인도 빈민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02)587-8756, jts@jts.or.kr

인도 보도가야=김동훈 통신원

• 지장보살의 구세법: <법멸진경(法滅盡經)>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장본원경>에는 구세법(救世法)을 담고 있다. 구세법은 21세기를 맞이한 인류가 닦아야 할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법멸진경>, 인류의 멸망을 슬퍼한 경(불안으로 본 방법의 세상 등), 제2장 <지장경>, 인류 멸망을 막는 방법을 시사한 경(현재에서 미증유의 대보살로 찬탄받은 지장보살 등), 제3장 구세법, 구세법(救世佛)이 보이는 불가사의한 힘(구세법과 서원(誓願)으로 생기는 불가사의한 힘 등), 결론(구세법 28종법과 7종법의 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원 후수가(黃岳) 지음, 일본 문예사 펴냄.

• 심경(心鏡)의 뜻: <The Buddha in Your Mirror>는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수행법을 제시해 일상생활 가운데서 긍정적인 특별한 효과를 누리게 한다. 그레그 마틴(Greg Martin) 등 3명의 저자들은 긴 정신적 휴식을 갖지 못하고 매일의 문제 비뚤은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드러낸다. 이 책은 부처님의 육성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진정한 삶’의 모델을 통해 건강과 인간관계,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세계와 환경, 평화, 기타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 중도(中道)출판사 펴냄.

해외 불서

유품·사진·세계 불상전시회·세미나  
뿌네시 사찰 인산인해·가두행렬도

▶찬불가 전문공연단인 ‘붓다 사라남 가차미’는 빔 페스티벌을 맞아 9-14일 암베드카르 회관에서 매일 밤 공연했다.

# 天 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병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 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약약)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형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주수복	1. 직삼, 바지, 포개 W130,000	2. 2중 방 W110,000	3. 두루마기 W120,000
가복	1. 직삼, 바지, 포개 W130,000	2. 2중 방 W110,000	3. 두루마기 W120,000
조끼·공배	7. 조끼, 공배 W50,000	7. 시즈 W30,000	

●해동승복  
대구고속터미널 옆 동부부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당뇨·고혈압

## 당뇨병 혈당강아 조절제

###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생인정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인정은 일부는 달고 일부는 쓴맛이 비합하여 생인정이라 생인정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면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가진피부가 고아됩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暢通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 난 후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후기에 눈앞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중에 따라 다른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제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은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중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배송분은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론 및 상담 (054)281-0544